

2007. 4. 5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여성들

멜라니 피스크
Melanie Fisk

노벨여성평화운동(NWI) 인턴

들어가며

지난 1월 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에는 여성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세계 평화구축을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세계사회포럼이란 초국적기업 주도의 세계화 및 부의 집중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세계화 회의로서,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사회정의, 국제적 연대, 양성평등, 평화와 환경보호 등과 같이 대안적인 움직임을 제안하고 있다.¹⁾ 올해 제7차 세계사회포럼은 “People’s Struggles, People’s Alternatives”이라는 주제와 “Another World Is Possible”이라는 표어를 내세워 지난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에서 약 5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NWI의 여성들

이번 세계사회포럼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여성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은 노벨여성평화운동(Nobel Women's Initiative: NWI)이라는 단체의 이름으로 회의에 참여하였다. NWI는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 중 6명의 여성 수상자들이 지난 2006년 설립한 평화운동단체이다. 캐나다 오타와에 본부를 두고 있는 NWI는 여성의 인권 보호와 평화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단순히 무력분쟁의 반대적 개념으로서의 평화가 아닌 신체적, 경제적, 정치적인 폭력은 물론, 문화적, 종교적, 성적 폭력 등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인 평화를 지향한다.

노벨 평화상은 그 수상자에게는 영예임과 동시에 인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NWI는 동 상을 수여받은 여성들이 그들이 가진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세계 각지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와 평등을 도모함으로써 그들의 책임을 다하고자 설립되었다. 여성의 권리와 민주주의, 평화 운동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여성은 위협과 폭력에 굴하지 않고 가족과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평화 구축의 중추이기 때문에 평

1) 세계사회포럼은 1971년부터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돼 온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대항하여 2001년부터 매년 각 대륙을 돌아가며 개최되고 있다.

화운동은 여성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NWI는 양성평등과 평화구축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운동가들과 연구자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일하며, 여성문제에 대한 국제회의를 지원한다.

노벨 평화상은 백 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지만 오늘날까지 이 상을 수여받은 여성은 모두 12명에 지나지 않는다.²⁾ NWI를 설립한 6명의 여성 수상자는 Jody Williams(1997), Shirin Ebadi(2003), Wangari Maathai(2004), Rigoberta Menchu Tum(1992), Betty Williams와 Mairead Corrigan Maguire(1976)이다. 이 중 조디 윌리엄스(Jody Williams) 교수는 1991년부터 전 세계적인 대인지뢰 반대운동을 시작하여 만 6년만인 1997년 12월 122개국이 대인지뢰 금지 조약(Landmine Ban Treaty)에 서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협약은 군수창고에 쌓여 있는 지뢰를 폐기하고 매설된 지뢰를 제거할 뿐 아니라 지뢰의 생산·수출·사용을 전면금지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의 서명 거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지를 받았다. 윌리엄스는 1997년 그가 활동한 단체인 국제지뢰금지운동(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과 평화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쉬린 에바디(Shirin Ebadi) 박사는 이란에서 인권 보호 특히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선 변호사이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최초의 이란인이자 최초의 회교도인인 에바디 박사는 이란 최초의 여성 판사로 임명된 이력을 갖고 있으나, 1979년 이란 혁명 후 여성은 법정에서 재판을 주재할 수 없다는 포고령에 의해 판사직에서 강제 해직됐다. 에바디 박사는 그 이래로 종교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종교법의 개혁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활동하였다. 그가 노벨 평화상을 수여받았을 때, 이란 언론은 국내에 그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NWI는 에바디 박사와 함께 이란 여성운동을 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란에서 여성에게 불평등한 법체계를 개선하는 운동을 통해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관련하여 NWI는 지난 2006년 6월 미국과 이란의 시민사회와 함께 양국 간의 분쟁이 각국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회를 열기도 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NWI는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도 양국의 문제 해결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력할 것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왕가리 마타이(Wangari Maathai) 교수는 환경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남벌로 인한 훼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에서 3천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기 위한 이른바 그린벨트운동(Green Belt Movement)을 이끌어 왔던 인물이다. 마타이 교수는 평화상을 수상한 최초의 아프리카 여성으로서, 이 운동을 통해 여성 단체들의 역량 강화와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왔다. 이상 3인이 NWI를 주창한 인물들이고 이후에 북아일랜드에서 교파분쟁에 대항하여 비폭력 평화운동을 지도한 Betty Williams와 Mairead Corrigan

2) 노벨상은 물리학, 화학, 의학, 문학 및 평화에 공헌한 전문가 혹은 기관에 수여된다. 1901년 이래로 오늘날까지 768명의 전문가와 19개의 단체(기관)가 수상했으며 이 중 33명이 여성이었다. 이 중 1903년 물리학상 수상으로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가 된 마리 퀴리(Marie Curie)는 1901년 화학상 수상으로 총 2번 수상하였다. 여성 수상자가 가장 많은 분야는 문학(10명)과 평화(12명)이다.

Maguire, 과테말라의 인종 간 화합과 정의를 위해 활동한 Rigoberta Menchu Tum 등이 조직에 합류하였다.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역할

분쟁이나 전쟁은 수억 명의 인구에게 폭력의 상처를 남긴다. 분쟁 상황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를 떠맡게 되는 여성은 그 폭력을 가장 무겁게 짊어지는 집단이다. 여성은 분쟁 상황에서 아동과 노인을 돌보고 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떠는 한편, 성적 신체적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분쟁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 개개인과 그들의 가족, 나아가서는 지역사회를 황폐화하는 도구로서 줄곧 사용되어 왔다. 현재 지구상에서 진행 중인 여러 무력 분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강간과 성폭력 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 계획된 전략의 하나로 사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분쟁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기 쉽고, 따라서 가해자가 이로 인해 형벌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여성들은 폭력의 피해자이지만 반면 이에 저항하는 풀뿌리 평화 운동을 이끄는 선두 세력이기도 하다. 정부의 공식적인 평화 협정이나 군사적 조치가 실패로 끝날 때, 여성단체들은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수단까지 많은 평화의 움직임을 시작했다. 때문에, 평화 구축을 위한 협상의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조정의 범위를 넓히고 실질적인 평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지속가능한 평화가 시작되는 지역사회의 수준을 포괄할 수 있는 접근법이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여성이 평화 재건 과정에 함께 할 수 없다면 궁극적으로 여성의 세력화를 담보할 수 없으며, 결국 보건, 안전, 재생산 등 광의의 안보를 달성하기 어렵다. 지역사회에서 인간 안보의 중심이 되는 여성이야말로 평화 재건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 중요한 행위자이다.

이번 세계사회포럼에서 NWI가 주최한 토론회는 “Women Building Another World”라는 주제를 다루며 개개인과 단체행동을 통해 그 역할이 증대될 수 있음과 여성이 세계평화를 위해 먼저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진정한 평화란 종래의 안보 개념을 국가 안보에서 인간 안보로 재정의할 때 성취될 수 있다. 인간안보는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동시에 두 개념 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세계 분쟁과 빈곤, 불평등, 환경과 같은 많은 문제들은 산업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정부의 책임이지만, 일반 민중도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이 같은 거시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마타이 교수는 “강한 시민사회만이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여성단체들의 연대를 강조하였다. 에바디 박사 또한 여성 활동가는 자매 활동가들의 지지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평화와 평등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오며

여성은 각각의 위치에서 증오와 폭력의 종식과 평화와 안전, 안녕과 자유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여성의 목소리는 계속될 것이다. NWI를 설립한 6명의 여성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은 각각 북미, 남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 평화와 평등, 인권과 환경을 위해 각자의 최선을 다해 온 여성들이다. 현재 생존한 여성 평화상 수상자 중 유일하게 아웅산 수지 여사만이 군사정권의 가택연금으로 NWI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루 빨리 아시아에서도 평화상 수상자가 여성을 대표하여 여성과 평화를 위해 힘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